

## 『소리 산책』 독후 활동지



폴 쇼워스 글 | 알리키 브란덴베르크 그림  
불광출판사 | 33쪽 | 초등1~2학년  
우리 아이 인성교육 시리즈 10

“

아빠랑 강아지랑 함께 동네와 공원을 걸으며 경험하는  
다채로운 소리의 축제

”

# 활동 표지 살펴보기



1. 아이의 머릿결이 시원하게 바람에 날리고 있어요. 이 바람은 무슨 바람 일까요? 아래 상자에 있는 바람의 이름을 참고하여, 아이의 머리카락을 날린 바람의 이름을 찾아봅시다.  
(정답은 없습니다.)

## 바람의 이름

실바람, 산들바람, 남실바람,  
간들바람, 소소리바람, 흔들바람,  
건들바람, 갈바람, 고추바람,  
꽃샘바람, 흠바람

1. 표지에 있는 제목 '소리 산책'의 글씨체가 특별해요. 무엇을 표현한 것 같나요?

-----

2. 여러분이 책을 읽고 난 후 받은 인상과 느낌으로 제목의 글씨체를 새롭게 디자인해 보세요.



### 활동3 메이저의 소리 산책

강아지의 청각은 사람보다 40배 이상 뛰어납니다. 책 속의 또 다른 주인공인 강아지 메이저는, 우리는 들어 본 적 없는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.  
메이저의 소리 산책은 어떤 소리로 가득할까요?  
우리에게는 들리지 않지만 메이저에게는 들려올 아주 작은 소리를 상상해 보세요.

개미가 기어갈 땐 이런 소리가 나지요.

-----

돌멩이가 굴러가요. 그 소리는,

-----

새가 털을 고르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면,

--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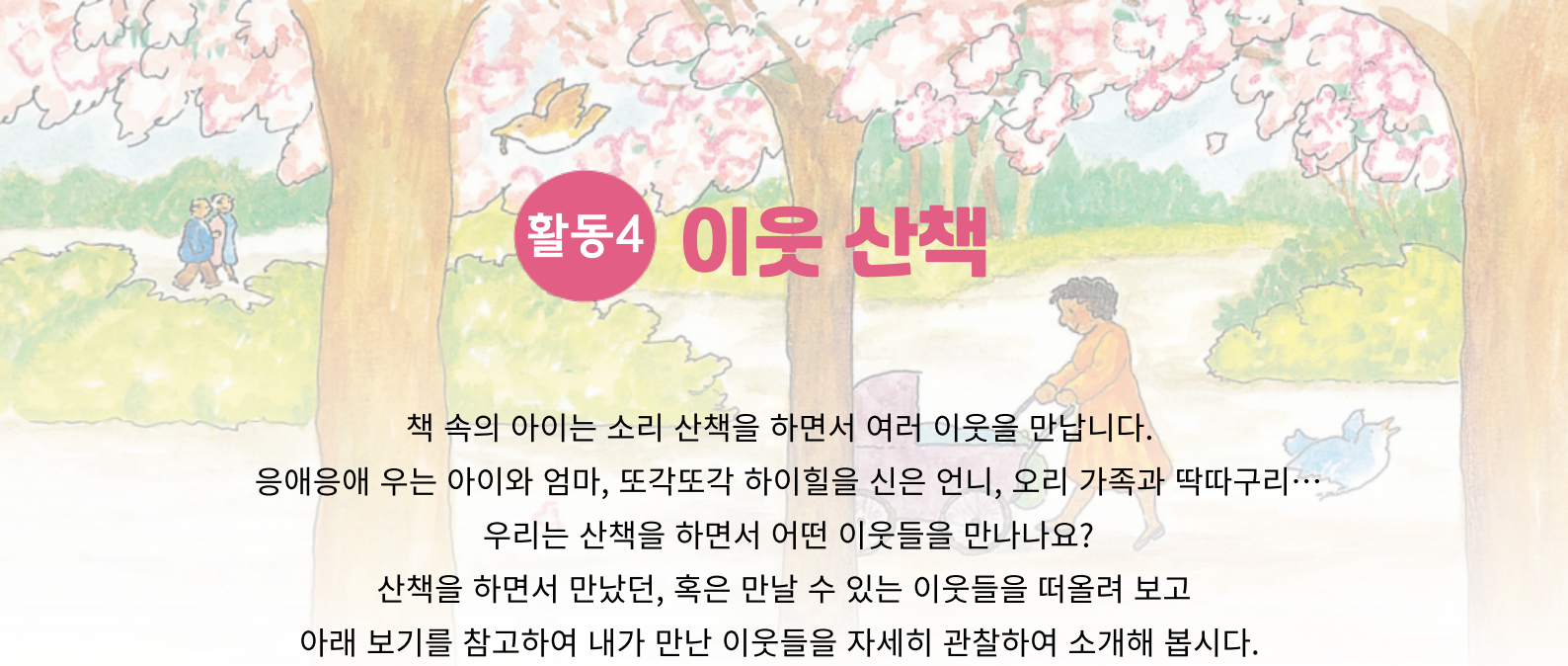
( ) 는 이런 소리를 내네요.

-----

( ) 소리를 들어 보세요.

-----





## 활동4 이웃 산책

책 속의 아이는 소리 산책을 하면서 여러 이웃을 만납니다.

응애응애 우는 아이와 엄마, 또각또각 하이힐을 신은 언니, 오리 가족과 딱따구리...

우리는 산책을 하면서 어떤 이웃들을 만나나요?

산책을 하면서 만났던, 혹은 만날 수 있는 이웃들을 떠올려 보고

아래 보기를 참고하여 내가 만난 이웃들을 자세히 관찰하여 소개해 봅시다.

(어디에 있나요? 나와 어떤 소통을 하나요? 무엇을 하는 중인가요? 무슨 소리를 내나요?)

<예시>

내가 만난 이웃: 비둘기

공원을 지날 때면 비둘기들이 내려앉아

우리에게 다가와요.

먹이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.

비둘기들은 날개를 파닥이고

종종걸음으로 다가와 먹이를 먹어요.

포르락 푸르르르르 소리를 내요.

내가 만난 이웃: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내가 만난 이웃: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내가 만난 이웃: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## 활동5 인상파처럼, 색깔 산책

하늘은 무슨 색일까요? 아마 다들 '하늘색'이라고 대답하겠지요. 그런데 여기 이 그림을 보면 하늘은 여러 가지 색이에요. 분홍색도 있고, 노란색도 있고, 주황색도 있네요.



모네의 <인상, 해돋이>(Impression, soleil levant, 1872,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)

이 그림을 그린 작가는 클로드 모네, 프랑스의 인상주의 화가입니다. '인상주의'란, 자연이 작가에게 주는 순간적인 인상을 작품에 표현하려는 미술의 한 기법을 말합니다.

빛과 함께 순간순간 움직이는 색의 변화에 특히 주목하지요.

소리처럼, 색깔에도 정해진 정답은 없는 것입니다.

하늘은 무슨 색일까요? 이번에는 직접 하늘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대답해 봅시다.

---

---

우리가 산책 중에 만나는 풍경의 색깔도 빛에 따라 시시각각 변합니다.  
우리도 인상주의 화가가 되어 순간의 빛을 포착하여 그림을 그려 봅시다.

하늘, 바다, 숲, 사람의 얼굴 등 산책길에서 만난 풍경을 골라  
여러분이 보고 느낀 그대로의 색채로 자유롭게 표현해 봅시다.

